

세계가 인정한 KBS 콘텐츠

2022년 각종 국제상서 탁월한 성과 드라마 최초 국제 에미상까지



공영미디어 KBS가 만드는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장르의 다양성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공적 가치이다. 이런 특징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올 한해 KBS 콘텐츠는 23개의 국제상을 받았다(12월 1일 기준). 이 가운데 <연모>의 국제 에미상 수상은 한국 드라마로서는 최초여서 더 빛을 발했다. 2022년 KBS 콘텐츠가 여러 나라의 다양한 국제상에서 거둔 성적의 의미를 분석해 봤다.

전 세계가 공감한 드라마

‘한국 드라마 최초 국제 에미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운 <연모>에 대해 미디어업계에서는 기성 사극의 정형성을 뛰어넘은 탄탄한 스토리 구성과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남장을 한 여성 주인공이 운명을 개척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소음 문제를 이색적인 설정으로 풀어내 주목받은 드라마스페셜 <사이렌>은 스톡홀름 필름&TV페스티벌에서 대상, 텔리상 TV호러물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이탈리아상에서는 TV드라마 부문에 최종 진출하며 KBS 드라마의 저력을 널리 알렸다.

공영방송 위상 높은 보도와 스포츠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는 2022년 ABU상 TV뉴스 보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3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공영방송 보도 프로

그램의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였다.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에능토크쇼 <슈퍼 히어로>는 기존 포맷을 벗어나 시청자들에게 더 쉽고 친밀하게 패럴림픽의 가치를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ABU상 TV스포츠 부문 장려상과 이탈리아 스포츠영화 TV페스티벌 패럴림픽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어린이·라디오 프로그램도 호평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낸 <TV유치원 - 악어 이야기>는 미국 애플레이드 글로벌 필름컴피티션에서 어린이/가족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과 ABU상 TV어린이 부문 대상을 받았다.

라디오의 경우 <세월호 아카이브로 다시 듣는 ‘그 날’>이 ABU상 라디오다큐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미국 국제다큐멘터리협회(IDA)에서 시상하는 IDA상 라디오다큐 부문 결선에도 진출했다.

KBS 콘텐츠 2022년 국제상 수상 실적

2022.12.1. 기준

국제상	수상 부문	수상 내역	수상작
그린이미지 국제환경영화제	단일	그린이미지상	<환경스페셜 - 설악 풀꽃 인생>
애플레이드 글로벌필름컴피티션	TV시리즈	최우수특별상	<대박부동산>
	TV시리즈	최우수특별상	<경찰수업>
	어린이/가족 프로그램	최우수상	<TV유치원 - 악어 이야기>
스톡홀름 필름& TV페스티벌	LGBTQ+	우수상	<다큐인사이트 - 빛은 무지개>
	장편영화	대상	<사이렌>
	TV호러물	금상	<사이렌>
텔리상	TV다양성 포용	은상	<다큐인사이트 - 빛은 무지개>
	실감형 가상현실	은상	KBS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스>
	TV문화	은상	<우전들 기쁨의 용기있는 도전>
	TV다양성 포용	동상	<다큐인사이트 - 아이 뚜렛>
역사필름페스티벌	TV다큐멘터리	관객심사단 특별상	<다큐인사이트 - 오월의 기록>

국제상	수상 부문	수상 내역	수상작
서울드라마어워즈	국제경쟁	작가상	<연모>
	한류드라마	OST상	<신사와 아가씨>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장편다큐멘터리	대상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특집 1부 포화속으로>
스포츠영화 TV페스티벌	패럴림픽	장려상	<슈퍼 히어로>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대상	<연모>
	라디오다큐멘터리	대상	<세월호 아카이브로 다시 듣는 ‘그 날’>
	TV어린이	대상	<TV유치원 - 악어 이야기>
	TV뉴스보도	대상	<시사기획 창 -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ABU상	TV스포츠	장려상	<슈퍼 히어로>
	여성감독	대상	<환경스페셜 - 옷을 위한 자구는 없다>
	소외계층	대상	<대청호 1부 - 그대 있음에>

‘KBS다움’으로 빛난 글로벌 콘텐츠



주창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K-방송콘텐츠가 작품성과 대중성을 앞세워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공영방송 KBS도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KBS 드라마 <연모>가 한국 드라마 최초로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대중은 놀라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K-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KBS 방송

콘텐츠가 23개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K-방송콘텐츠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대중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의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타의 K-방송콘텐츠들과 차별화된다.

우선, KBS는 K-방송콘텐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드라마 장르와 오락 프로그램 포맷에 국한되었던 K-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뉴스, 다큐멘터리, 어린이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방송

[2면에 계속 ▶]

[1면에 이어서]

연맹(ABU) 시상식에서 TV뉴스보도 부문 <시사기획 창 - 암수범죄, 아동 학대를 부검하다>, TV어린이 부문 <TV유치원 - 악어 이야기>, 라디오다큐멘터리 부문 <세월호 아카이브로 다시 듣는 '그 날'>이 각각 대상을 받았다. 드라마와 달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르지만, KBS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몇 해 동안 다양한 장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갑자기 이룩한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인 셈이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다양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정치적 올바름의 가치를 KBS가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KBS는 OTT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이 주도하는 영상 콘텐츠의 상업성과는 다른 위치에서 있다.

젠더 이슈를 아름답게 녹여낸 드라마 <연모>의 국제 에미상 수상은 오스카를 받은 <기생충>이나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수상한 <오징어 게임>의 성과와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이다. <연모>는 나도 즐겨본 드라마인데, 고정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해체를 보여주면서 낭만적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냈

다. 창의적인 작품을 심사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텔리상(The Telly Awards)을 <다큐인사이트 - 빛은 무지개>와 <우전들 기잡이의 용기있는 도전>이 받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다큐인사이트 - 빛은 무지개>는 인권을 직접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성 소수자의 일상과 사랑, 그리고 차별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미국의 애플레이드 글로벌 필름 컴피티션(AGFC)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TV유치원>이 두 개의 상을 받은 것도 반갑다. <TV유치원>은 지상파에서 가장 소외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지만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켜왔는데, 그동안 노력에 대한 작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특집 1부 포화 속으로>, <세월호 아카이브로 다시 듣는 '그 날'>, <다큐인사이트 - 오월의 기록> 등은 시대의 고통을 성찰하면서 사실을 넘어 진실을 마주하게 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담아냈다.

수많은 플랫폼이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KBS는 방송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도 공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KBS다움'을 내세우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방송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다.

김의철 사장, ABU 부회장 당선

김의철 사장이 11월 3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59차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총회에서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부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025년 12월 말까지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19년 제56차 도쿄 총회 이후 온라인으로 열리다 3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치러진(11월 25일~30일) 이번 ABU 총회에서는 스포츠그룹 미팅을 시작으로 기술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라디오 워킹파티, ABU TV Song 페스티벌, ABU상 시상식, 수퍼패널포럼, 총회와 본회의 및 회장단 선거 등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K-POP 대표 솔로 아티스트인 강다니엘이 한국 대표로 참가해 큰 관심을 모았던 ABU TV Song 페스티벌은 12월 19일 0시 20분에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제60차 ABU 총회는 202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 동안 KBS 서울 본사와 인근 호텔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의철 사장은 '2023 ABU 서울총회'를 홍보하는 연설에서 "공영방송 KBS의 5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백년을 설계하는 시점을 맞아 온라인과 현장 개최를 병행하고 ESG 경영의 실천을 통해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를 실감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고민을 담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KBS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숙소와 행사장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배치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탄소 발생 요소를 차단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1964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송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발족된 ABU는 KBS와 일본 NHK, 중국 CMG(CCTV), 튀르키예 TRT, 인도 DD, 말레이시아 RTM 등 65개국의 250여 개 방송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KBS는 ABU의 창설회원이며 현재 이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양계 너머 우주 속으로

키스더유니버스2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며 창의적 스토리텔링으로 미래 세대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외에서 각종 상을 수상한 <키스 더 유니버스>가 이번에는 태양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인터스텔라(Interstellar : 항성간 우주)의 이야기를 들고 시즌2로 찾아온다.

<키스 더 유니버스> 시즌2는 기존의 '프리젠테이션 쇼'와 '다큐멘터리 취재'의 결합이라는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UHD 화질과 LED 무대 등을 통해 기존에 선보였던 우주선을 보다 생동감 넘치게 구현했다.

또한 어린 시절 우주비행사를 꿈꿨다는 배우 하지원이 은하수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프리젠테이터)를 맡아 우주의 매력 속으로 시청자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 1편 <우리는 혼자인가?> 12월 15일(목)

▶ 2편 <블랙홀과 우주의 끝> 12월 22일(목)

밤 10시 KBS11



다양한 주제를 더 깊이 있게 환경스페셜2



지난해 UHD 방송으로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환경스페셜>은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처한 지구의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 주목받았다. 12월 3일 첫 회가 방송된 <UHD 환경스페셜> 시즌2는 총 10부작인데, 그 안에서 테마별 '3부작 연속 시리즈' 등의 형식을 통해 주제의 다양성과 깊이를 한층 강화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갯벌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조명한 <갯벌 3부작>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스리랑카 코끼리 등 환경 위기의 최전선 현장을 취재한 <데드 존 3부작>, 그리고 물고기와 새, 반려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멀 3부작>은 자연 다큐멘터리의 본질인 생태를 넘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한다.

<갯벌 3부작> 중 1부 <신의 캔버스, 신안 갯벌>(12월 3일 방송)은 1,000여 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져 빼어난 경관미를 자랑하는 신안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2부 <바다의 금맥, 블루카본>(12월 10일 방송)은 순천만 갯벌을 중심으로 갯벌의 블루카본(어패류, 염생식물 같은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 맹그로브 숲, 염습지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이 지닌 잠재력을 다뤘다. 17일 방송되는 3부 <생태 보물섬, 유부도>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서해 유부도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물떼새의 공존기를 그릴 예정이다.

방송 예정일	제목	내용
1월 7일(토)	독도 100년 프롤로그	맹이갈매기 등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한 관찰기를 소개하고, 해저탐사를 통해 미지의 영역을 조명해본다
1월 14일(토)	데드 존 3부작 1편 <플라스틱 코끼리>	생존을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지에 몰려든 스리랑카의 코끼리와 그들의 죽음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고민해본다
1월 28일(토)	데드 존 3부작 2편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콩고 코발트 광산과 태국과 나이지리아의 폐가전 쓰레기장 등 지구촌 곳곳의 아동 노동 착취 현장을 고발한다
2월 4일(토)	데드 존 3부작 3편 <죽음의 바다>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바다 생태계의 실태를 취재하고, 원인을 분석해본다
2월 11일(토)	애니멀 3부작 1편 <아이 엠 피시>	물고기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해석 등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해본다
2월 18일(토)	애니멀 3부작 2편 <아이 엠 버드>	도심 속 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파트 탐조단, 한강 생물 보전 연구센터 구조대원들의 활동을 통해 새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분석해본다
2월 25일(토)	애니멀 3부작 3편 <엠 아이 펫?>	최근 뱀, 악어, 긴팔원숭이 등 희귀 야생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인간과 야생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 방법을 모색해본다

"신나는 금요 라이브"~~♪ 김혜영과 함께



베테랑 DJ 김혜영의 톡톡 튀는 진행으로 나른한 오후 청취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혜영과 함께>. 매주 금요일에는 '금요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는데, 1부는 매회 각기 다른 콘셉트를 정해 그에 맞는 출연 가수와 노래로 꾸며지고, 2부는 고정 출연 가수가 청취자들로부터 문자와 콩 게시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한 달은 트로트와 포크 가수들이 출연해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며 중장년층 청취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2월 2일 방송에서는 '트로트의 후예들'이라는 부제 아래 <내일은 미스 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 김의영과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 장혜리가 출연했고, 9일에는 <히든 싱어> 박정현 편에 출연했던 가수 유민지가 놀라운 가창력으로 청취자들에게 감동의 라이브 무대를 선사했다.

'금요 라이브 무대'는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캐럴 특집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 아래, 신인 가수부터 실력과 중견 가수에 이르기까지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을 뮤지션들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혜영과 함께>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2라디오(수도권 106.1MHz)에서 방송되며, PC와 스마트폰 앱 콩(KONG)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다시 올려 퍼진 ‘딩동댕동!’ 김신영표 <전국노래자랑>의 저력



정덕현
문화평론가

“딩동댕동!”, “전국~노래자랑~~” 일요일 낮이면 어김없이 TV에서 올려 퍼지는 이 오프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만든다. KBS <전국노래자랑>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탓에 이 프로그램을 매회 시청하지 않는 대중들의 마음까지도 잡아끄는 힘이 있다. 지방 곳곳에 저마다 끼를 숨긴 채 살아왔던 분들이 무대에 올라 쏟아 내는 흥이 구수한 즐거움을 전하고, 세련되지 않은 면면들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정으로 다가오는 프로그램.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은

한국인이란 누구든 똑같이 느끼는 일종의 리추얼(의식) 같은 프로그램이 됐다. 생일에 케이크에 촛불을 붙인 뒤 축하 노래를 부르고 불어서 불을 끄는 그런 의식처럼, 주말에 오프닝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프로그램이 바로 <전국노래자랑>이다.

그 <전국노래자랑>이 지난 11월 27일 2,000회를 맞았다. 1980년 11월부터 시작했으니 햇수로 40년이 훌쩍 넘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진행자들도 여러 차례 바뀌어, 이상용이나 최선규 같은 이들이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 대중들에게 가장 크게 각인된 <전국노래자랑>의 MC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송해 선생님이다. 1988년에 이 프로그램을 만나 6년간 진행하고 1994년에 하차했지만 시청자들의 빔발치는 요구에 7개월 만에 복귀했던 송해 선생님. 그는 그 후 28년간 <전국노래자랑> MC를 맡았다. 지역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우러지고 때론 기꺼이 망가지기도 하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함으로써 ‘일요일의 남자’로 불렸던 송해 선생님의 부재는 <전국노래자랑>의 위기이기도 했다. 그를 대체할 MC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다. <전국노래자랑>의 후임 MC로 김신영

이 전격 발탁됐다. 남성 MC들, 그중에서도 나이 지긋한 남성들로만 채워져 왔던 <전국노래자랑> MC 자리에 젊은 여성인 김신영이 발탁된 건 파격이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 파격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큼 폭넓게 모든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MC도 없다는 공감대 때문이었다. <행님아~> 같은 콩트 코미디에서 어린 소년 역할을 연기했고, 최근 ‘다비 이모’라는 부캐를 통해서도 중년 여성 트로트 가수로서의 서글서글한 매력을 뽐냈다. 여기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인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를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해온 성실함과 여기에서 돋보인 대국민 소통 능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그렇게 지난 10월 16일 베일을 벗은 김신영 표 <전국노래자랑>은 첫 방부터 시청자들의 합격점을 받았다. 관심이 높았던 만큼 시청률도 9.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까지 치솟으며 화제를 모았고, 무엇보다 ‘일요일의 막내딸’을 자처한 점이 주효했다. 그는 “송해 선생님은 ‘일요일의 남자’였다. ‘일요일의 여자’는 다가서기 어렵고, 막내딸은 키우는 재미도 있으니 ‘일요일의 막내딸’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막내딸, 막둥이 하나 키운다는 생각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해 선생님이 해왔던 <전국노래자랑>의 색깔을 이어나가면서 ‘막내딸’이라는 자기만의 색깔을 더해 넣은 거였다.

故 송해 선생님의 그림자는 여전하지만, 막내딸 김신영은 그 위에 자기만의 <전국노래자랑> 색깔을 덧입히는 중이다. 보다 젊은 느낌으로 <전국노래자랑>을 끌어안으면서 끼가 가득한 출연자들에게서는 그 주제 못하는 흥을 끄집어내고 지역 특산물을 들고 나오는 출연자들과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지역을 홍보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다. 사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았고 그 위에 고송해 선생님의 부고까지 더해졌지만, 김신영 표 <전국노래자랑>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Show must go on)”는 말이 실감난다. 다시 올려 퍼진 ‘딩동댕동!’에 여전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걸 보면.

알기 쉬운 미디어 이슈

제로 파티 데이터(Zero-Party Data)와 퍼스트 파티 데이터(First-Party Data)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

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

방송사의 시청자 데이터 확보 방법과 수준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닐슨을 통해 얻고 있다. 닐슨은 전국의 4,320가구(수도권 1,345가구, 서울 550가구)에 설치한 피플미터(각 가정에 설치된 TV와 연결하면 현재의 시청 채널, 시청 시간 등 각종 시청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TV 시청률 자동분석 원격장치)를 통해 시청률을 조사해 다음 날 시청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지역, 성별, 연령, 소득, 직업 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통계적으로는 이 패널만으로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는 있지만, 넷플릭스처럼 이용자 전체의 개인 취향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IPTV 시청 데이터이다. 전국 가구의 94.3%가 가입한 유료 TV 가입자 약 3,600만 명(2022년 상반기 기준 IPTV 2,020만 명, 케이블TV 1,282만 명, 위성 298만 명)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유료 TV 사업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방송사에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지상파 연합 플랫폼인 웨이브(wave)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단, 이용자 수가 닐슨미디

어 코리아의 모바일 데이터 수집 서비스인 코리안 클릭 기준으로 2022년 10월, 373만 명으로 넷플릭스 1,019만 명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여건에서는 방송사가 넷플릭스처럼 정확한 시청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중요성

이용자의 데이터는 크게 ‘제로 파티 데이터(Zero-Party Data)’와 ‘퍼스트 파티 데이터(First-Party Data)’로 구분된다. 전자는 설문 참여나 회원가입 시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이고, 후자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직접 수집한 구매 및 활동 데이터이다. 두 가지 모두 고객의 구체적인 개인 정보와 이용 행태, 생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대부분의 미디어 서비스는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메일과 패스워드 정도만 입력하도록 가입 절차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더욱 중요하다. 넷플릭스가 이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넷플릭스는 기존 미디어 기업이 만든 콘텐츠를 유통하며 성장했다. 처음에는 DVD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VOD 서비스로 전환했다. 가입자가 증가하자 기존 미디어 기업은 콘텐츠 공급 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미국 케이블 네트워크인 스타즈(Starz)는 2012년 스타즈 플레이라는 자체 서비스를 만들면서 넷플릭스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하우

스 오브 카드>가 소위 대박을 쳤고 그 이후 오리지널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넷플릭스는 기존 회원들이 좋아하는 경향을 분석했는데, 정치 드라마가 인기 있고 데이빗 핀치 감독이 연출하거나 케빈 스페이스가 나온 콘텐츠가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넷플릭스는 두 개의 옵션을 실험하는 A/B 테스트를 통해 썸네일이나 트레일러를 결정하고 개인이 선호하는 경향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올드 미디어 기업의 대응 방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웨이브이지만, 이용자 규모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웨이브 데이터가 유일하다.

KBS 미디어기술연구소는 멀티플랫폼데이터부가 운영하는 멀티플랫폼 통계포털, 스톰(StoRRm: Statistics of Reach & Revenue for Multiplatform) 서비스에 웨이브의 실시간 영상과 VOD 시청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스톰에서는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의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디바이스별 자료를 추가한다면 제작진이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제작진이 웨이브의 시청 데이터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웨이브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추천해 가입자와 이용자 수 증가를 꾀할 수 있어야겠다.

KBS 제주방송총국

〈뉴스7〉 지속가능하려면 인력·예산 뒷받침돼야



최광일
제주총국 시청자위원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KBS 제주방송총국의 새로운 실험은 신선하고 파격적이었다. 단순히 2시간 30분 빠른 뉴스가 아니었다. 리포트와 단신이라는 천편일률적인 보도 형식을 뛰어넘어 ▲오늘 제주 현장 ▲뉴스 읽어주는 아나운서 ▲친절한 뉴스 ▲탐사K ▲제주에서 본 세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뉴스 포맷의 큰 변화를 줬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제주방송총국이 지난 2018년 12월 새로운 형식의 지역 시사뉴스 종합프로그램 〈뉴스7〉을 처음으로 선보인 지 4년이 지났다.

〈뉴스7〉은 중앙집권적 보도 방식에 익숙했던 지역 시청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전국뉴스 꼬트머리에 짧게 방송되던 ‘지역뉴스’가 아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뉴스의 중심이었다. 온전히 제주만의 소식으로 채워졌다. 35~40분 분량으로 제작되는 〈뉴스7〉 전체를 지역 콘텐츠로 채우는 실험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다. 매주 목요일 한 차례 방송되던 〈뉴스7〉은 이듬해 4월 매주 4차례로 확대 편성됐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시청자들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듯 핵심을 쉽게 전달하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를테면 친절한 뉴스, 시사용어 사전, 오늘 제주 현장, 앵커 생각, 뉴스 픽 등 다양한 형식으로 뉴스의 흥미를 붙여 넣었다. 지역방송 활성화의 시범사업으로 첫선을 보인 〈뉴스7〉은 지역 공영방송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전국 9개 총국으로 확대됐다.

〈뉴스7〉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기자들의 열정과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뉴스7〉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뉴스를 만드는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인데 업무 부담만 늘어난다면 〈뉴스7〉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 단순히 기자의 열정만 가지고 질 높고, 만족도 높은 뉴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 현장에서 뛰는 KBS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뉴스7〉 제작 외에도 심층 취재, 디지털 기사 작성, 출연 등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한다. 〈뉴스7〉이 지역방송에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열정페이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제 〈뉴스7〉은 지역방송의 상징이 됐다. 지역성 구현과 저널리즘 혁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타 방송사와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믿고 보는 뉴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만큼 〈뉴스7〉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렵게 쌓아 올린 〈뉴스7〉의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KBS 청주방송총국

물과 바람, 시간이 빚어낸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 이야기기가 있는 풍경



2017년 1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야기가 있는 풍경〉은 충북의 사계절과 그 안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행 프로그램이다. 26년간 〈6시 내고향〉에서 충북의 소식을 전해온 이야기꾼 이병철 리포터와 올해 초 청주방송총국의 가족이 된 이지현 아나운서가 호흡을 맞추며 충북의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풍경〉은 새순이 돌아날 무렵의 들녘과 피서철 아름다운 계곡, 산이 많은 충북의 가을 단풍, 한겨울 눈 덮인 마을 등을 소개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낸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때에는 안전한 방식으로 충북의 곳곳을 소개하며 답답한 일상에 심표를 찍기도 했다.

진행자인 이병철 리포터는 “충북은 오래 봐야 예쁘고 다시 봐야 좋은 곳이고,

발품 파는 일이 즐겁다”고 밝히고, 창원이 고향인 이지현 아나운서는 “충북 사람들의 느린 말투에서 묵직하고 은은한 정이 느껴진다”는 말로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지난 6년간 매번의 제작 과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촬영 현장마다 “잘 보고 있어요, 우리 동네 또 와요”,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라며 반기는 시청자들이 있기에 〈이야기가 있는 풍경〉 제작진은 오늘도 여장을 꾸린다.

보고 있으면 차표 한 장 들고 떠나고 싶게 만드는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풍경〉. 앞으로도 다양한 충북의 풍경과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0분(충북권) KBS

2022년 KBS 프로그램을 빛낸 스타들이 한자리에



K-POP 스타들이 꾸미는 최고의 무대 <2022 KBS 가요대축제>가 12월 16일(금) 저녁 8시 30분부터 210분간 방송된다. 개그우먼 김신영, 배우 나인우, 가수 장원영이 진행을 맡았으며, 가수 보아(BoA)의 단독 무대 등 다채로운 라인업과 환상적인 이벤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 한해 KBS 예능 프로그램을 총결산하고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최고의 프로그램과 예능인을 선정하는 <2022 KBS 연예대상>은 24일(토) 저녁 개그맨 문세윤, 배우 설인아, 가수 겸 배우 찬희의 사회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2022년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KBS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2 KBS 연기대상>이 방송인 전현무, 가수 겸 배우 이혜리, 정용화의 진행으로 2023년 새해 첫날 새벽까지 방송된다.

- ▶ 가요대축제 : 12월 16일(금), 저녁 8시 30분 **KBS2**
- ▶ 연예대상 : 12월 24일(토), 밤 9시 20분 **KBS2**
- ▶ 연기대상 : 12월 31일(토), 밤 9시 20분 **KBS2**

제2기 1020 시청자위원 임기 마쳐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친 제2기 'KBS 1020 시청자위원' 29명에 대한 수료식이 11월 25일 KBS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5월 선발된 1020 시청자위원들은 그동안 KBS 프로그램 출연과 비평은 물론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KBS의 이미지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의철 사장은 수료식 인사말에서 "KBS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와의 접점을 찾아가는 공공미디어 서비스의 일환인 1020 시청자위원 제도를 통해 젊은 시청자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KBS 교향악단,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업무협약



KBS 교향악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11월 23일 한예종 본관 회의실에서 한창록 KBS 교향악단 사장과 김대진 한예종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예 연주자들의 성장 지원과 클래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세계 무대로의 진출을 꿈꾸는 젊은 연주자들에게 더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클래식 음악 교육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제20대 PD협회장에 김세원 사우



제20대 PD협회장으로 김세원 사우가 당선됐다.

2003년 공채 29기로 입사한 신임 김세원 PD협회장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된 협회장 선거에서 74.1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김 협회장은 "PD협회를 통해 협회원 간의 교류와 이해를 높이고, 좋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의 사랑> 등 단막극 극본 당선작 선정



제35회 KBS TV 드라마 단막극 극본 공모에서 총 6편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의 영광은 <코로나 시대의 사랑(홍지원 작)>에 게 돌아갔고, <말효의 시간(석연화 작)>과 <그림자 고백(박은서 작)>은 우수작에 뽑혔다. 가작으로는 <대결(오승희 작)>, <혈중산소농도가 낮으면 사랑을 하세요(김영선 작)>, <여름, 매미(조일연 작)>가 선정됐다.

지난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이번 공모에는 총 1,805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당선작은 보완을 거쳐 KBS 단막극 시리즈인 '드라마 스페셜'로 제작될 예정이다.



노은지 기상캐스터의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체감온도 공식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추위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한파 특보가 내려집니다. 먼저 한파 주의보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기온이 -12℃ 이하로 내려갈 때 내려지고요. 한파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한파 경보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낮아지거나 아침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갈 때 내려집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체감온도’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날씨 예보에서 ‘체감온도’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텐데요. 체감온도는 실제 관측소에서 재는 기온이 아닌 실제로 몸이 느끼는 온도로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사람이 느끼는 추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어떻게 짚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몸으로 느끼는 추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왔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체감온도를 계산한 사람은 미국의 탐험가 ‘폴 사이플’과 ‘찰스 파셀’입니다. 남극을 탐험하던 사이플과 파셀은 체감온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실린더에 물을 채운 다음 건물에 매달고, 바람과 기온에 의해 실린더의 물이 얼마나 빨리 어는지를 측정해 체감온도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945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체감온도 공식, ‘사이플-파셀’ 계산식입니다. 그 이후에도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공식이 만들어졌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체감온도는 2001년 토론토에서 발표된 체감온도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람의 코, 턱, 이마와 뺨에 센서를 붙이고, 기온과 바람의 세기에 따른 피부 온도와 열 손실을 계산한 결과인데요. 풍속과 기온의 관계식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체감온도 = 13.12 + 0.6215T - 11.37 V^{0.16} + 0.3965 V^{0.16}T입니다. T는 기온(℃)을 V는 풍속(km/h)을 의미합니다. 복잡하게만 보

이는 식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바람이 1m/s씩 강하게 불 때마다 체감온도는 1~2℃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의 기온이 -10℃고, 바람이 4.2m/s로 불면 체감온도는 -17℃입니다. 물론 이 공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여러 요소 중 바람에 치중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겨울철 찬 바람이 강하게 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체감온도 계산법입니다.

이제 막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질 데요. 찬 바람이 불 땐 보온에 더욱 신경 쓰시고요. 멀리 떨어져 지내는 어르신과 주변 이웃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뉴판 없는 구멍가게 ‘성원식품’



나 혼자만 알고 싶은 맛집 기행

노중훈 여행작가

성원식품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나는 어르신들이 우선이야. 왜? 그분들이 날 살게 해줬으니까.” 빈말이 아니다. 약 사반세기 동안 두 곳에서 구멍가게를 책임져온 어머니는 단골손님에 대한 고마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단골 우대 정책’은 그 감사함의 발로다. “우리 집 손님들 평균 연령이 쉰(말이 그렇다는 거다)이고, 90% 이상(어렵잡아 그렇다는 거다)이 단골이야. 가끔 뜨내기손님이나 젊은이들이 오면 먹을 거 없다고 돌려보내.” 출입이 봉쇄된 사람은 기분 좋을 리 없겠지만 나는 어머니의 이런 원칙을 ‘아름다운 배타 정책’으로 간주한다. 성원식품의 단골들 가운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식당과 술집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게다가

가 성원식품에는 자그마한 테이블이 겨우 다섯 개 있다. 어머니의 배려가 아니면 기만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정말 엉덩이 붙일 데가 없다. 그들에게 성원식품은 실제적 위안이자 언제든 막걸리 한잔 곁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곳이다.

성원식품은 가맥집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구멍가게에서 술도 팔고 안줏거리도 파니까. 하지만 전주에서 시작해 서울까지 불어 닳친 가맥집 열풍에 편승해 급조된 가게가 아니다. 레트로 바람을 등에 업고 우후죽순처럼 생긴 곳들과는 확연히 결이 다르다. 뉴트로(뉴+레트로) 콘셉트를 동원, 요즘 세대의 눈에 신기하게 보이는 옛 모습을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가게에서 음식을 팔 뿐이다. 성원식품에는 메뉴판이 없다. 가까운 인현시장에서 그날그날 장을 봐 형편에 맞게 음식을 낸다. 그러니 주문 전 “오늘은 뭐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된다. 어머니가 “특별히 먹을 게 없는데”라고 해도 당황하지 말자. 매일 준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출현하는 안줏감들이 있다. 생선구이로는 가자미구이와 조기구이가 부지런하게 등판하고, 해산물 요리로는 오징어데침과 소라숙회가 꾸준하게 출석하며, 부침으로는 김치전과 동태전과 두부부침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라면은 오후 5시까지만 끓여준다. 호박, 양파, 달걀 등 곁에 있는 재료를 정성껏 넣어준다.

어떤 음식을 받아들여도 만족스럽지만 정작 내가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무와 멸치다. 술을 청하면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기본 안주다. 제주산 무, 특히 제주가 잉태한 겨울 무는 시원함의 정점이고 아삭

함의 끝판왕이다. 이거 하나로 몸 전체에 생기가 돋는다. 무가 맛있는 계절에는 수분이 많은 오이로 대체한다. 마른 멸치는 맛과 더불어 의미도 주목해야 한다. 어머니로부터 멸치를 받는다는 것은, 더 세밀하게 말해 어머니의 양념간장을 끼얹은 마른 멸치를 하사받는다는 것은 성원식품의 진정한 단골이 됐다는 징표다.

나는 성원식품에 혼자 가기도 했다. 유난히 마음이 허한 날, 밤 10시쯤이었다. 밤 11시에는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해야 하니 실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나는 소주 한 병과 김치전을 주문했다. 풀이 선 와이셔츠 칼라처럼 뽀뽀한 부침개가 아닌, 겉은 살짝 탔지만 유순한 부침개여서 좋았다. 갓 부쳐 뜨끈뜨끈한 동태전도 좋았다. 혼자 간 거 맞다. 마음이 허한 게 아니라 배가 고팠었나? 나는 20분 만에 소주 한 병과 부침개 두 점시를 격파하고 도시의 어둠 속으로 다시 흘러들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20길 24-11
·메뉴: 부침개, 생선구이, 오징어데침

K
B
S

설

대
기
획

송
골
매

콘
서
트40년만의
비행

한국 록 밴드의 전설, 모두가 그리워해 온 송골매가 귀환했다.

12월 10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여 동안 고양시 킨텍스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에서는 송골매의 전성기를 이끈 배철수와 구창모가 히트곡 ‘아찌다 마주친 그대’, ‘모여라’, ‘처음 본 순간’ 등을 열창해 객석을 가득 채운 5천여 명의 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송골매의 ‘아득히 먼 곳’을 불러 화제를 모았던 배우 이선균, ‘모두 다 사랑하리’를 리메이크한 그룹 엑소의 수호,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활동 당시 송골매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힌 가수 장기하가 게스트로 나와 이번 공연의 의미를 더 뜻깊게 했다.

송골매는 1980년대에 ‘록’을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장르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밴드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4년 연속 <KBS 가요대상>에서 록 그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골매 콘서트 - 40년만의 비행>은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We’re HERO ‘임영웅’>,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처럼 KBS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한 초대형 공연프로젝트다. 공연 실황은 2023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1일 밤 9시 20분, KBS 2TV를 통해 ‘설 대기획’으로 방송된다.

▶ 1월 21일(토) 밤 9시 20분 **KBS2**